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그 과제들

김민숙((사)씨즈 연구원)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그 과제들

2011. 11. 2

김민숙 ((사) 씨즈 연구원)

1. 생존을 위한 실체적 경제

물 v. 다이아몬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대표적인 학자로 언급되는 칼 폴라니 (Karl Polany, 1886-1964)가 제기했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바로 인간의 경제행위를 ‘실체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가 다룬 개념을 보면 ‘실체적 경제’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생산의 의미로서 사용을 위해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제이며 이에 반해 ‘형식적 경제’는 이윤을 위해 희소한 자원의 합리적 선택이며 이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이다. 그러면서 폴라니는 그의 유고집 『The Livelihood of Man』에서 공기나 물,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조건들은 희소성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형식적 경제에 해당하지 않는, 시장경제와는 수많은 다른 경제제도들이 인류 역사에 존재해 왔음을 주장하고 있다.

‘실체적 경제’와 ‘형식적 경제’를 단순화 한 예로 물 한 병과 그만큼 부피의 다이아몬드를 비교해보자. 물은 희소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경제에서 그 값은 매우 싼 자원이다. 이에 비해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희소한 보석이므로 같은 부피의 물에 비해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랜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과 다이아몬드 중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가 행할 경제행위는 무엇이겠는가?

물론 너무 지나치게 극단화 한 예이긴 하나 사회적 경제와 기존 주류 경

제의 차이를 든다면 이러한 차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값비싼 보석이라 해도, 그것이 아무리 엄청난 이윤을 가져다주는 재화라 해도 시장경제를 통해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탐욕을 쫓기보다는 오히려 흔하디흔한 물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자원으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기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안전하게 이용하고 특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에 더 관심이 있는 경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인격과 관계를 통한 여성성의 경제

객관, 기계, 사물 v. 인격, 감정, 관계

칼 폴라니와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20세기 서구의 심리상담가인 폴 투르니에 (Paul Touriner, 1898-1986)는 ‘여성, 그대의 사명은’이란 제목으로 번역된 그의 주요 저작 중 하나인 『La Misson de la Femme』에서 ‘남성은 건설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물의 사회가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그는 관계와 인격, 감정 같은 주로 여성성으로 대변되는 보편적 가치보다는 권력, 이성, 객관, 사물과 같은 남성적 가치가 서구 사회를 이끌어 오면서 자연을 대상화 하고 기계적으로 이용하며 개인의 가치와 감정은 무시되는 물 인격화된 산업사회가 도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남성적 가치를 추구한 산업화의 결과는 자기 일을 좋아해서 신나게 일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그 일을 싫어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대다수의 무리들의 부조화 현상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그가 여성적 가치와 남성적 가치를 대비하며 서술하고 있는 글 전반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와 주류 경제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던 ‘실체적 경제’와 ‘형식적 경제’가 지향하는 내용과도 일치하는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시장 경제는 소비하는 대상과 주체 간에 객관적 관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제 행위로 옮기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 역시 인격이나 감정 같은 것은 전혀 교류되지 않는 기계적인 관계를 만들어 놓았다. 우리는 개인의 인격이나 감정, 소통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할 수도 없는 효율과 경쟁의 시스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는

오히려 기존 시장 시스템에 개입되어서는 안 될 요소, 즉 여성적 가치로 무시되고 배제되었던 감정과 인격, 소통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경제행위 과정에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충남 지역에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을 방문하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투르니에가 적었던 글 그대로를 농촌 상황에 적용해 보면 ‘많은 이장님들과 위원장님들은 체험관과 창고 등을 짓고 장비를 사며 길을 닦는데 관심이 있었다.’ 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마을들에서 권력과 사물에 집중하여 대부분의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토건 사업 이후에 그것을 채워가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이자 생각의 다양성, 자발적인 열심, 소통의 문제였다. 이 부분에서 많은 농촌 사업들이 하드웨어만 구축하고 내용을 채우는데 실패한 사례가 부지기수로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이는 비단 농촌뿐 아니라 우리 한국사회 전체가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도 하다.

물론 내용을 담을 틀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틀을 만드는 데까지가 기존의 남성적 가치로 끌어온 부분이라면 이제 그 내용을 채워가는 것은 우리안의 여성적 가치, 여성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고 끌어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잘 되는 마을을 보면 이러한 남녀의 역할과 가치가 상호 보완적으로 잘 융화되어 진행되는 곳들이다. 체험마을 예를 들어 보더라도 열심 있는 이장님을 위시한 남성분들이 애를 써서 좋은 시설이 갖추어지고 난 후,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손님을 맞고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호박 한 덩이, 직접 담근 맛난 된장 한 통이라도 싸주면서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은 많은 부분 여성들의 역할(혹은 여성적인 이장님?^^)인 것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의 주요 분야인 돌봄과 교육, 각종 서비스 부분에서 실제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은 주로 여성들이다.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격과 감정을 소통하며 정서적으로 격려하고 관계를 맺는 경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가 여성들만의 경제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남성 중심 주류 경제에서 배제되고 무시되었던 감정과 인격의 영역을 살려내고 이 끌어내자는 여성성의 경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부장적 농촌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고 사회적 경제 하자 하면서도 자꾸만 형식과 권력, 경쟁으로 기울려고 하

는 많은 남성들 안의 여성성, 아니마(anima)를 발현하여 더 이상 근엄하고 무심한 아버지의 경제가 아닌, 자식을 키워내는 세심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경제로서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가자고 하는 것이다.

3. 실천의 과제들

철학과 세계관의 변혁

사회적 경제가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이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인가. 지역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보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다지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결과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개별 경제행위의 주체들이 세계와 역사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틀거리 자체가 달라야 한다.** 이는 앞서 사회적 경제가 실체적 경제, 인격과 관계의 경제라고 이야기 했던 지점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다. 사회적 경제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몬드라곤, 볼로냐 등 협동조합 전통으로 유명한 세계의 여러 지역들과 가까이는 원주에 이르기까지 모두 카톨릭 전통과 사회주의 운동 등 기존 자본주의에 대응할 철학과 세계관이 바탕이 된 곳들이다.** 기존 주류경제를 추구해 온 방식의 세계관으로는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효율과 이용의 관계로 대상화 하고 인간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폭력적이고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회적 경제를 하고자 한다는 것은 단편적인 대안이 아니다. 한 때 유행하는 정책이나 경기 부양책만으로 취급되어져서는 승산이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보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세계를 대하는 철학과 가치관의 변혁을 이루어내어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생명, 사람, 지역

그렇다면 그러한 세계관의 핵심 내용들은 무엇인가. 굳이 꼽아 본다면 생명과 사람, 지역이 아닐까 생각한다. 많은 생명들과 더불어 사람이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살아있어야 한다. 역으로 지역이 살아있어야 그 안에 사람과 생명이 지속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생명과 사람과 지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순환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

계를 휩쓸고 다니는 금융자본의 탐욕과 서울 수도권 집중의 구조로는, 사람과 자원이 모두 빨려가는 상황에서는 이 땅과 생명을 제대로 지켜낼 사람도, 그 사람이 살아갈 지역의 터전도 모두 망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작은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문화, 교육

사회적 경제를 위해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몇 장 안 되는 카드들 중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카드들에 어떤 내용을 담아갈 것인가가 사회적 경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앞으로의 주요한 과제이다. 물론 경제 행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다종 다양한 업종의 주체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했던 보다 근본적 변화, **생명과 사람과 지역을 중시하는 세계관의 변혁을 일으키고 실체적 경제, 인격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문화와 교육 분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뿌리는 우리가 어떤 경제행위를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근거와 지향을 형성하는 바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젊은 일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소통과 활동의 기반이 되며 이를 통해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장**이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충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 중 대표적인 충남교육연구소와 같은 사례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해 보는 것이다. 지역의 자존감을 높여내고 인간다움을 향유하며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기반은 무엇보다 교육과 문화의 영역에서부터 회복되어야 한다. **서울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지역이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 되기 위한 출발의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문화, 교육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들은 목적의식적으로 지역의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관과 문화를 향유하며 협동의 경제를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음 세대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갖고 그 안에서 생명과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경제 주체들로 커 가도록 돌보며 지원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해당 분야의 사회적 기업들은 그 고유 사업으로, 기타 타 업종의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기업협의회 또한 자체 구성원들의 심화 교육 및 시민 연대 등으로 지속해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역시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력 및 정교한 교육 커리큘럼의 개발 보급 등에 많은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 내용을 담아가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흥동이 있기까지 풀무학교를 시작으로 한 오랜 역사의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한 지난한 과정을 통해 지역의 일꾼들이 성장해 갈 때,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 억지로 만들어 낸 제도나 정책으로서의 사회적 경제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경제를 대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